

팩션(faction) 드라마와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 즉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주관적 의견에
대해서는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과연 팩션 드라마를 통해
'사실적 주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드라마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 고려의 개국을 다룬 A 드라마에서는 후백제의 침입으로 국운이 저물어가는 신라 경애왕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런데 후백제의 견훤이 경애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걷어차는 치욕적인 장면이 경애왕 후손인 박 씨 문중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경애왕이 견훤이 얹어버린 술잔에서 흘러내린 술을 훔쳐 먹는 모습은 문중의 화에 기름을 부었다. 문중에서는 “기록에는 견훤의 위협에 경애왕이 자결했다고만 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거짓을 사실이라고 믿게 될 것이니, 정정보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A 드라마에 과연 '사실적 주장'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역사란 '이어지는 사실들'의 기록이지만 드라마는 창작자의 '주관'으로 탄생시킨 예술이어서,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사실적 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 사건에서 중재부는 예술과 오락을 위한 A 드라마에는 사실적 주장이 없다고 봐서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도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과 현재 사이에 놓인 1000년 이상의 먼 시간적 틈새가 시청자에게 이 역사 드라마의 디테일한 묘사를 사실적 주장보다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받아들이게끔 했을 것이고, 당시의 중재부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드라마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없을까. 법원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B 드라마에 대해 정정보도 책임을 인용한 적이 있다. 일명, 수지김 사건(안기부에 의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간담(?)한 범죄가 '아내가 남편을 북한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한 뒤 북한 측이 납북 시도 은폐를 위해 도리어 아내를 살해해 버린 복잡한 범죄'로 둔갑한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10여 년이나 흘러 일의 자초지종이 밝혀졌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42억 원을 배상한 사건이었다. 이 드라마의 문제는 당시 안기부 직원이던 실존인물 C가 이 어마무시한 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방영되었는데, 사실 C가 이 조작과 무관했다는 데 있었다. 법원은 정정보도를 명하는 한편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논픽션 성격을 가진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드라마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생각해보건대, 팩션 드라마가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드라마의 근본 목적이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정면으로 재조명하는 것에 있는지, 실존 인물이 드라마에서 중심인물인지 배경인물인지, 또는 실존인물에 의한 역사적 사실과 가상인물에 의한 허구적 이야기가 드라마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 차이(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9.선고 2006가합66611, 2006가합73756(병합)) 등 좀 더

다양하고 정밀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정말 골똘히 생각한 가상의)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이 여자 친구를 위해 서태지의 번기를 훔쳐온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대해 어느 날 서태지가 “나는 번기를 도난당한 적이 없다”는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어떨까. 아마도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서태지는 이 드라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주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오해할 일이 극히 적기 때문이다.

